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2과 천지와 만물의 창조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들이다. 사람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우리가 없다는 것은 공간에 찾는 것이 없을 때를 뜻하는 말일 뿐이다. 공간도 없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온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계시한 말씀을 살펴보자.

1. 천사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다만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천사의 창고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103:20-22]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수종을 들도록 창조되었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천사를 맨 먼저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젬28:14,15]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말씀은 그룹이 지음을 받았다고 계시한다. 그룹은 천사의 한 군(群)이다. 천사의 무리는 그룹과 스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6:1-3] 옷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104:4,5]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암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천사를 창조하신 후에 땅의 기초를 두셨다고 기록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천사를 먼저 창조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히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도되.

이것은 시편 104:4을 인용한 말씀이다.

[시18:10]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사6: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그룹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바람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룹을 타고 나는데 드것이 바람 날개라고 한 표현이 그렇다. 스랍은 불꽃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시편 104:4과 관련하여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다.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천사를 다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 우주의 창조

[행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다 창조하셨다.

[사40: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을 하시고 순서를 따라 한 세계씩 창조하셨다고 생각된다.

[잠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하나님은 세상 진토의 근원을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한 세계씩, 한 세계씩 계획하신 순서를 따라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다.

[욥38:4-7]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미 다른 별들이 창조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지구가 창조될 때 우주의 다른 세계 거민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다.

[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엡3:14,15]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계시한다. 그 중에 지구와 거기 있는 만물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구 외에도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음을 계시한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지구의 창조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2:1,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1에 의하여 이 지구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구와 관계된 것들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구와 거기 관계된 것을 만들었을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

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출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1:2-31] 엿새 동안 지구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가라사대(이르시되)”가 11번, “좋았더라”가 7번, “그 종류대로”가 10번, “그대로 되니라”가 5번 나온다. 이 말씀들은 창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말씀들이다. 이런 말씀들은 진화론적 사상을 철저히 부정하는 선언이다.

창조 6일간의 일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 지 창 조			
첫째 날	흑암과 빛	넷째 날	광명, 빛과 어둠을 완성하심
둘째 날	궁창, 물	다섯째 날	궁창과 물의 생물, 궁창과 물을 완성하심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여섯째 날	땅의 생물, 사람, 땅을 완성하심
일곱째 날: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 안식일 제정하심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사실들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4. 논의 되는 사실들

1) 1절은 우주 창조의 총론이나 지구 창조의 서론이나?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 우주 창조의 총론이면서 지구 창조의 서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 세계씩 불러내신 것이다. 그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선언한 것이 1절이며, 동시에 지구 창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창조한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인 것이다.

2)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은 무엇 무엇이나?

지구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주로 말한다. 그러나 이미 땅이 있고 땅위에 물이 있고 흑암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 이런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천하 진토의 근원을 만드신 것 중에 지구 창조할 것을 남겨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지구의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한 말씀에 의하여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어둠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다.

[시104:20]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사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들은 창조주께서 흑암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계시하였다.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핵심 사상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의 장본인인 사단에 대하여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사단은 환난과 고통을 지구에 끌어들이는 장본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권능으로 막으면 못할 것이지만 때가 될 때까지 그가 하는 일을 놔두신 것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은 어떻게 다르나?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광명을 만드셨다. 빛은 “오르(Oris)”이고 광명은 “므오르트(Oris)”이다. 이것은 빛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첫째 날은 빛이라는 물질을 만드셨고, 빛의 모든 작용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넷째 날은 그 빛을 보관할 물질을 만드신 것이다. 발광체라고 할 수 있다.

므오르트는 빛으로보관하는 물질이다. 성경에는 등불이나 등대 등유를 므오르트라고 하였다. 마오르는 장막 안에 있는 등불이나 등대에 대해 사용되었다.(출 25:6, 출 27:20, 출 35:8, 출 35:14, 출 35:28, 출 39:37, fp 24:2, 민4:9, 민 4:16)

4) 넷째 날에 별들을 창조하셨는가?

넷째 날에 창조하신 별들이 있다면 태양계의 별들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욥38:4-7]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보이는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넷째 날에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창1:16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기록하였는데, 원문에는 마지막 “만드시고”라는 말이 없다. 16절을 살펴보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하고 끝맺었다. 이 말씀은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주관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136:7-9]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여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5) 일자와 연한과 사시와 징조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역할의 법칙을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자는 지구의 자전이다. 연한은 지구의 공전이다.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의 시간적 지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창조하시는 마당에 그 일을 위하여 말씀하셨는지는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상태에서도 징조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시는 무엇일까? 창조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사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공전 궤도를 정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구는 태양 궤위를 도는데, 일 년에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일이 두 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두 번이다. 그런데 전 반년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춘분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하지이며, 후 반년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추분이고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동지이다. 이것은 바로 지구의 공전궤도이며 이것이 오늘날 사시를 정하는 기주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 사람 창조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2:21-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5:1,2]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셨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어준 이름이다. 물론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계시한다.

[고전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말은 여자의 신체와 생명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내었다는 뜻이다. 여자는 남자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시8:4-6]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영화는 “카보드(קָבוֹד)”인데, 영광이라는 말이다.

존귀는 “하다르(הָדָר)”인데, “높이다, 위엄, 영예, 아름다움, 예쁨, 뛰어난”등의 뜻이 있다. 이것은 시온의 대로에서 공부했다.

“관 씌운다”는 말은 “아타르(אֲתָר)”인데 “둘러싼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둘러싸인 모습이었다.

[창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지구의 통치자로 창조되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눅3: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며 짐승의 후손이라고 그릇되게 생각한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한다.